



김제사랑장학재단, 제58회 정기이사회 개최

김제시는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이 26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먼저 2025년 외부·내부 정기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제사랑장학재단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를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장학사업 추진 성과와 재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감사 결과, 체육관나무 격려금 확대와 김제사랑장학금·모두누리 진학격려금 운영, 지평선나눔소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평선학당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선발 시 과락점수(40점)를 도입하는 등 선발기준을 강화해 학업 관리의 내실을 높였다. 또한 전자문서·전자회계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했다.

이후 △2025년도 결산(안), △기부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성주 이사장은 “정기감사와 장학재단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지역 인재육성의 중심축으로 더욱 견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2026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남원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영유아 보육계획과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보육 기반 확충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육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책 심의에서는 △2026년도 남원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2026년도 남원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농어촌지역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심사 등 총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안건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으로,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보육 운영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특례 적용을 통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산림조합,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장수군립조합(조합장 한상대)은 26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재)장수군예향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장수군의 미래를 이끌갈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림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장수군 장학생 선발·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상대 조합장은 “장수군의 푸른 산림처럼 우리 학생들도 곧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정성은 장수군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곽노태 기자

“자봉센터 공공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박정석 전북자봉센터장
한국자봉센터협회장 취임

(사)전북특별자치도자봉봉사센터 박정석 센터장이 26일 한국자봉봉사센터협회 제4대 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한국자봉봉사센터협회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개로 구성된 국내 자원봉사 분야 대표 협의체로 협회는 자원봉사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센터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핵심 단체이다.

박 센터장의 이번 협회장 취임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센터장은 취임사에서 “이 자리는 치열한 현장을 지켜온 전국자봉봉사센터 동료들이 맡겨주신 책임의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협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자원봉사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리자들의 역할 또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기자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 협회운영 △정부·국회·지자체와의 정책 협력 강화 △연대와 신뢰 기반의 협회 운영 등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박 회장은 2026년 UN에서 지정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언급한 뒤 “대한민국 자원봉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숫자로 기록되지 않아도 공동체를 지탱해 온 자원봉사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오만호기자

“청년 창업으로 지역의 미래 열 것”

김정기 도의원, 전주대 경영행정대학원 창업학 석사과정 졸업

부안을 지역구로 둔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창업학 석사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해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김 의원의 도전은 ‘평생학습’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전주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복과 학위모를 착용한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학위복을 입으니 다소 어색하면서도 마음은 다시 젊어진 느낌이었다”며 “배움의 기쁨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 시간을 내어 석사과정에서 창업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 지원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 창업이 지역 인구 유지와 경제 회복의 핵심 대안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정책적 지원과 현장 중심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 지원과 더불어 안정적인 창업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성공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카이스트 졸업식장 방문 발언을 언급하며 청년 도전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창업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더라도 정부와 행정이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며 “마음껏 도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김 의원의 학업 성취가 단순한 개인적 성과를 넘어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연구한 경험이 향후 의정활동에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끝으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앞으로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우겠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김 의원은 “전북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 지원과 더불어 안정적인 창업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성공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카이스트 졸업식장 방문 발언을 언급하며 청년 도전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창업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더라도 정부와 행정이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며 “마음껏 도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김 의원의 학업 성취가 단순한 개인적 성과를 넘어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연구한 경험이 향후 의정활동에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끝으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앞으로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우겠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태권도원, ‘WT 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 공식 지정

태권도진흥재단-세계태권도연맹 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과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은 2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원을 WT 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로 지정했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이루어진 협약식에는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태권도원을 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로 지정하고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버추얼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올림픽 e스포츠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태권도가 디지털 융합 스포츠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체력관 내부에 버추얼 태권도 대회 운영이 가능한 장비와 훈련 시스템을 위해 설치한다. 세계 최초의 태권도 e스포츠 훈련센터인 WT 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 구축과 함께 버추얼 태권도 경기 운영자 자격증 교육 과정, 버추얼 태권도 아마추어 리그 등 버추얼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세계태권도연맹



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태권도연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버추얼 태권도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협업을 계획한다.

태권도원이 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로 지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24년 버추얼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버추얼 태권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비롯해 2018년 지정된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의 성공적 운영 등이 밑거름 됐다. /무주=손홍기 기자

남원 동통동, 1일 1가구 소통행정 추진

남원시 동통동 행정복지센터는 매일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저소득 세대, 심한 장애인 가구, 고령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해 안부확인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착한가게 정기 기부에 동참한 호남이벤트기획(대표 노인호)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를 통해 기탁된 금액은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광주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들과 협력에 나섰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 상담 현장과 연계한 세액공제 안내와 제도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9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세무사의 역할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역 단위에서도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무사들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 상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함으로써, 제도 참여를 보다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만호 기자



전북교육청, 계약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계약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를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국립간호간선대학 치유원에서 2026년 상반기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수에서는 △공사계약 및 물품·용역 계약 실무 △유권 해석 및 주요 감사 사례 공유 △전북교육청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청렴교육 등이 다뤄진다.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질의응답을 병행해 현장 적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건협 전북지부, 2030세대 건강검진 집중 홍보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2030세대 국가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건협 전북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관내 주요 대학교를 순회하며 2030세대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검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내 게시판과 학교 홈페이지, 교내 전광판 및 전자게시대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각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엄진영 본부장은 “청년기 건강검진은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2030세대가 건강검진에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시, LX와 업무연찬회... 전문성 함양

김제시는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제지사와 지적업무 관련 연찬회를 가지며 전문성 함양에 나섰다. 김제시는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제지사와 지적업무 관련 연찬회를 가지며 전문성 함양에 나섰다. 김제시는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제지사와 지적업무 관련 연찬회를 가지며 전문성 함양에 나섰다.

이날 100여명의 지적역사가 축적기술의 발달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가 됐으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아날로그방식의(구)지적에서 해법을 찾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해 신규 직원(지역차)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계는 사유재산권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측량을 통해 공부에 등록되며 잘못된 지적측량의 결과는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적은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일관된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김제시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상호 윈-윈 하는 협업의 시간이 됐다.

특히 축적기술적인 부분과 지적행정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지역차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며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 또한 시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축적기술 함양을 위해 월 1회 현장 측량이 직접 투입해 현장기술을 익히기로 하며 2회 연찬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공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나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지적이니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연찬회를 가져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